

도우심의 통로

삼상 7:3-12

미국의 기독교 문학가인 ‘지글러’(Zig Ziglar)라는 분이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릴 때의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6 척 장군 골리앗이 있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천둥소리를 내며 전쟁하자고 외쳐댔지.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무서워서 골리앗 앞에서 도망을 갔는데 그 때 17 살 밖에 안 된 소년 다윗이 용감하게 싸우러 나갔단다.” 얘기를 한 참 하고 있는데 어린 아들이 갑자기 얘기를 중단시키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러면 다윗이 용감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하네요.” 지글러는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얘야, 다윗이 용감하지 어째서 골리앗이 용감하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소년 다윗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가서 싸우는 것이 당연하지만, 골리앗은 덩치만 크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그 덩치 믿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용감해요?” 이 지글러는 어린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그렇지. 세상에는 골리앗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만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독립을 선언한 사람과, 다윗과 같이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종속을 선언한 사람이 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능력과 힘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말씀에는 이스라엘이 풍전등화 같은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대국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시달림을 받고 있을 때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모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였고,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기념으로 돌을 세워 에벤에셀이라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받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도우셨습니다. 본문 말씀 5-6 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미스바로 모이라 하니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고 말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의 자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첫 번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20 에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바로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약속은 성경을 통하여 수없이 증명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0 명의 성도가 모여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으며, 빌립보 감옥에 갇혀 기도하고 찬송하던 바울과 실라 두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어김없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보통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하는 숫자를 따지고 많이 모인 곳에서의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많이 모이는 것 중요하지만 수만 명이 모여도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으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두 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도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주님께서 바로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느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이름으로 미스바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였고 그들을 도와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모이기에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의 통로는 바로 진실 된 회개입니다. 6 절 말씀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감사할 조건을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회개할 조건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려운 일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진실한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회개해 본 일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 일은 해결 받게 됩니다. 혹시나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 된 회개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블레셋의 침략 앞에서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 된 회개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 복된 기회가 되었습니다. 진실 된 회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901 년에 시작된 노벨상(Nobel Prize)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상 중에 최고의 권위를 가진 상입니다. 그런데 이 노벨상에 버금가는 큰 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템플턴상'(The Templeton Prize)입니다. 1972 년에 제정된 이 상은 영국계 미국인 실업가인 John M. 템플턴이 노벨상에 종교부문이 빠진 것을 못내 아쉬워하여 자신의 사재를 털어 마련한 상으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어지는 상입니다. 1972 년 테레사 수녀(Mother Teresa)를 첫 수상자로 하여 솔제니친(Solzhenitsyn), 빌리 그레함(Billy Graham) 목사님 등이 이 상을 탔는데, 지난 1994 년 스물한 번째 수상자로 우리나라의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경직(Kyung-Chik Han) 목사님이 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은 이 상을 받으신 뒤 축하예배 장소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큰 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목사님의 이 고백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노종의 진심 어린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회개하는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자를 크게 사용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으로 채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통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8 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는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까지 바꾸었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멸망당할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엎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며 문제를 해결케 하여 주십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도움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통로는 본문 9 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이 젓 먹는 어린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자를 도우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장로님을 세우기 위해 면접을 합니다. 목사님이 묻습니다. "장로님이 되시면 어떻게 교회를 섬기시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보편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몸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물질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예배 잘 드리셔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으십시오. 예배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은 절대로 좋은 장로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예배시간에 은혜 받지 못한 성도가 교회 봉사를 책임지면 반드시 그 봉사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배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성도가 교회의 중직을 맡으면 그 부서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배시간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봉사는 봉사가 아니라 무거운 짐 같은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배시간에 은혜 받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셔서 그를 축복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공하시길 원하십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 된 교회, 샌안토니오 연합감리교회 공동체에서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온전히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삶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십시오. 생활의 곳곳에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축복을 크게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